字吐釋讀口訣 硏究의 回顧와 展望*

金星周**

要約

1973년 『舊譯仁王經』이 발견된 이후 자토석독구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이 자료의 해독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으며, 90년대 이후 자토석독구결이 속속 발견되면서 자토석독구결에 대한 연구의 깊이가 더해 갔다. 자토석독구결 연구는 구결자의 독법, 음운(형태음소론), 조사와 어미들의 문법적 기능 등의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몇몇 구결자를 제외하고는 독법, 原字 등은 대체로 밝혀져 있다.

석독구결 출현 이전 시기에는 자료의 빈곤으로 인하여 고려시대 국어의 문법 체계를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석독구결의 연구로 인하여 고려시대 국어의 전면적인 문법적 기술이 가능해졌다. 석독구결의 연구 성과는 향가 연구에도 커다란 기폭제가 되고 있다. 향가 연구는 더 이상 석독구결 연구 성과의 반영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다.

자토석독구결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점토석독구결의 연구 성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후자는 전자보다 자료의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

* 이 글은 구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제36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이다. 발표에서 또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미처 검토하지 못한 논고나 잘못 파악한 논의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란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sutra01@hotmail.com

전자에 없거나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독구결은 본질적으로 한문의 해석을 위해서 현토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원문 내용과 한문(고전중국어)의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핵심어 : 석독구결, 자토석독구결, 점토석독구결, 향가, 향찰, 이두, 연구사

1. 서론

釋讀口訣은 1973년 瑞山 文殊寺에서 『舊譯仁王經』 卷上 落張 5枚가 발견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 구결은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音讀口訣(順讀口訣)과는 읽는 방식이 다른 것이었다. 이 구결의 발견 이후 이를 해독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시도가 지금의 석독구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 밑바탕이 된다.

口訣 연구는 많은 경우 석독구결과 음독구결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뉘어져 있다. 釋讀口訣에 대한 논의인 경우, 자토석독구결 또는 점토석독구결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또한 鄕札, 吏讀도 口訣과 같은 借字表記이므로 여러 면에서 양자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 이 글은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의 관련성과 향찰, 이두와 자토석독구결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은 다른 논의로 돌리고 가능한 한 자토석독구결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字吐釋讀口訣의 연구 분야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자토석독구결의 자료 소개, 서지적 연구 및 해독
둘째, 구결자의 讀音과 原字 및 음운·어휘에 관한 연구
셋째, 토의 문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자토석독구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연구사적 정리는 이미 南豊鉉(1990, 1997, 1999가), 李丞宰(1997가), 鄭在永(1997나), 高正義(2004), 장윤희(2004), 鄭在永(2006)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글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 기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舊譯仁王經 발견 이후 자토석독구결에 대한 개별 연구들을 토대로 현재의 자토석독구결의 연구사적 정리와 전망을 제시한다.

2. 자토석독구결의 解讀과 서지적 연구

『舊譯仁王經』 卷上이 발견된 이후 국어학계는 이 구결의 해독에 매진하게 되었다. 沈在箕(1975), 南豊鉉·沈在箕(1976), 李東林(1982), 金永萬(1986) 등은 『舊譯仁王經』 석독구결의 해독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거론할 수 있다. 특히 『口訣硏究』 제5집에서는 『舊譯仁王經』 구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유통 과정을 다룬 高榮燮(1999)을 필두로, 음운, 경어법, 시상과 서법, 종결어미, 구문론, 어휘 등이 이승재(1999), 백두현(1999), 김영욱(1999가), 장윤희(1999), 박진호(1999), 박성종(1999) 등에 의해 다루어졌다. 金斗燦(1995, 1997) 등도 『舊譯仁王經』 이후 90년대 초에 소개되었던 다른 석독구결 자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舊譯仁王經』 구결을 연구한 업적이다.

그러나 『舊譯仁王經』 이후에 소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 『舊譯仁王經』 이후 발굴된 자토석독구결 자료는 『華嚴經』 卷第14, 『華嚴經疏』 卷第35, 『合部金光明經』 卷第3 등이 南權熙(1993, 1994가, 1994나)에 의해서 소개되었으며, 자토석독구결 자료 전반에 대해서 南權熙(2002)에 서지적 연구가 실려 있다.

『舊譯仁王經』과 같은 종합적인 검토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한 업적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華嚴經疏』 卷第35에 대해서는 남경란(2002), 김동소·남경란(2003), 남경란(2003), 이은규(2003) 등에서 'ㅅ', 'ㅿ', 'ㅈ', 'ㅸ', 'ㅊ', 'ㅋ'의 독음과 전반적인 구결의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華嚴經』 卷第14에 대해서는, 口訣字에 대해서 李丞宰(1993), 구결자 'ㅈ'와 'ㅊ' 그리고 'ㅏ'에 대해서 백두현(1993, 1995가), 그리고 구결문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해독에 대해서는 南豊鉉(1994), 沈在箕·李丞宰(1998), 金斗燦(2000) 등이 있다.

『瑜伽師地論』 卷第20에 대해서는 南豊鉉(1993, 1998)에서 表記法, 한글 轉寫, 해독을 제시했고, 金永萬(2000)은 '由ᄉᆡ'와 '如ᄒᆞ'의 讀法에 대하여 다루었다. 특히 南豊鉉(1999나)는 자토석독구결 『瑜伽師地論』 卷第20을 다룬 단행본으로서 말미에는 색인과 영인을 싣고 있다. 장경준(2005)와 서민욱(2005)는 『瑜伽師地論』 점토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 자토와의 대응 관계를 주도면밀하게 밝혔다.

『合部金光明經』 卷第3에 대해서는 南豊鉉(1996가)와 백두현(1997나)에서 'ㅋ'의 용법과 '-ㅁㅁㅌ', 'ㅣㅅ', '言ㄱㄴㅋ' 등의 토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鄭在永(1998나)는 表記法, 한글 轉寫, 해독에 대해서 다루었다.[1]

『口訣硏究』 3집에는 『華嚴經疏』 권제35를 제외한 『華嚴經』 권제14, 『合部金光明經』 권제3, 『瑜伽師地論』 권제20 등에 대해서 표기법, 한글 전사, 해독 등이 각각 沈在箕·李丞宰(1998), 鄭在永(1998나), 南星祐·鄭在永(1998), 南豊鉉(1998) 등에서 시도되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구결 기입 시기와 영인본의 소재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다.

---

1) 『合部金光明經』 卷第3은 자토석독구결과 함께 점토석독구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鄭在永 2006: 145-146).

자 료	구결 기입 시기				影印本의 所在
	南權熙 (2002)	南豊鉉 (1999가)	백두현 (2005)	鄭在永 (2006)	
『華嚴經疏』 권35	12세기 초기	11세기 말 내지 12세기 초엽	12세기 중엽 혹은 그 직후	12세기	南權熙(2002)
『華嚴經』 권14	12세기 중기	12세기 중엽 내지 후반	12세기 말-13세기 초	12세기 후반 내지 13세기 전반	『口訣硏究』 1집
『舊譯仁王經』 上	13세기 후기	13세기 전반	13세기 중엽	13세기	沈在箕·南豊鉉(1976)
『合部金光明經』 권3	13세기 중기	13세기 초엽	13세기 중엽 이후	13세기	
『瑜伽師地論』 권20	13세기 후기	13세기 후반	13세기 말엽	13세기 후반	南豊鉉(1999가)

한편 安秉禧(1987)에서는 均如(923~973)의 『釋華嚴教分記』 卷第3에 남아 있는 석독구결문 "或有如 佛性隱 闡提人隱 有豆亦 善根人 無如好尸丁 或有如 佛性隱 善根人隱 有豆亦 闡提人 無如好尸丁(띄어쓰기 필자)(혹 있다, 佛性은 闡提人은 있지만 善根人은 없다 함이. 혹 있다, 佛性은 善根人은 있지만 闡提人은 없다 함이.)"를 소개하였다. 자료로서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아쉽기는 하나, 이를 통해서 均如의 여러 저술이 석독구결문의 성격을 가진 方言이 많이 섞여 쓰였다는 점, 10세기 중반 이전의 현전하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구결자 중 '豆(두), 好(호)' 등은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구결자라는 점을 알 수 있다(장윤희 2004: 65).

3. 구결자의 讀音 및 原字와 문법적 성격

자토석독구결 연구의 출발은 구결자의 독음과 原字를 파악하는 일이다. 구결자의 原字와 독음은 석독구결을 연구한 거의 모든 논의에서 조

금씩 다루었지만 한 문헌이나 석독구결 자료 전체를 다룬 업적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李丞宰(1993), 沈在箕·李丞宰(1998)에서 『華嚴經』 권제14의 구결이, 南豊鉉(1998나)에서 『瑜伽師地論』 권제20의 구결이 다루어졌고, 5종의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구결에 대해서는 백두현(1997가, 2005), 鄭在永(1998다), 南權熙(2002), 장윤희(2004), 鄭在永(2006) 등이 구결자의 讀音과 原字를 제시하였다. 구결자의 독음과 原字의 고증은 앞의 것을 제외하고도 南豊鉉(1993), 백두현(1993, 1995가, 1995나, 1996), 이장희(1995가, 1995나), 鄭在永(1995가, 1995나, 1996나)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자토석독구결의 구결자는 음독구결에서 주로 계승되어 쓰였지만 없어진 것도 있으며, 字形은 남아 있으나 독음이나 기능이 바뀐 것도 있다. (李丞宰 1997나, 백두현 2005: 13-114)[2] 구결자의 原字와 독음의 추정은 개별적인 구결자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별적인 연구에서 原字나 독음과 관련하여 거론된 구결자로는 '', '', '', '', '', '', '', '', '', '' 등이 있다. 이 중 ''에 대해서는 金斗燦(1999)은 [ᄀᆞᆮ]이 아닌 [져]로 보고, 原字를 '這'로 보았다. ''에 대해서 황선엽(2003)은 종래에 [놀]로 읽어 왔던 것을 [근]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 ''은 각각 ''과 ''과 같은 형태를 표기하는 구결로 보고 原字를 '斤'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그는 ''의 음가도 [기]가 아니라 [ㄱ]인 것으로 보았다.

南豊鉉(1997)는 ''에 대해서 독음을 [ᄒᆞ이]로 原字를 '令'으로 보았으며, ''에 대해서는 [리]로, 原字는 역시 동일한 '令'으로 파악하였다. ''를 [ᄒᆞ이]로 볼 수 있는 것은 『瑜伽師地論』 권제20의 欄上에 '令'으로 고쳐 쓴 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보았고, ''의 原字를 '令'으로 볼 수

2) 백두현(2005: 13-129)는 字吐釋讀口訣의 口訣字와 麗末鮮初 음독구결의 구결자를 비교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구결자의 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있는 것은 『合部金光明經』 권제3의 일부에는 'ᄉᆞ'가 'ᄉᆞ' 대신에 쓰인 예들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令'의 초서체가 'ᄉᆞ'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리]로 읽히는 'ᄉᆞ'의 원자를 '令'으로 보는 것은 자형 이외에 새김이나 기능의 측면에서도 연관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ᄆᆞ'은 독음과 原字에 관해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구결자 중의 하나다. 먼저 南豊鉉(1996나)는 독음을 [ㄹ]로 보고 같은 음을 표기한 'ㄹ'이 대격조사를 표기하는 데 비해, 'ᄆᆞ'은 동명사어미의 기능을 하며 15세기 국어의 '-ㄹ ᄋᆞ'에 계승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金斗燦(1999)는 독음을 [ㅂ]으로 보고 原字를 '邑'으로 보았다. 'ᄌᆞ'에 대해서 金斗燦(2001)은 '菩薩'을 뜻하는 불교의 보통명사 '佛子'의 약체자로 파악했고, 백두현(2005: 92)는 '菩薩', '大王' 등 人性的 자질을 가진 명사를 代用하는 대명사로 보았다.

'ᄎᆞ'에 대해서도 지정문자설(李丞宰 1993), 지정문자설의 부정(백두현 1993), <瑜伽>와 <金光>의 '如ᄎᆞ'에 대해서 [ᄀᆞᆮ]으로 읽자는 견해(金永萬 2000), [다]에 가까운 음으론 본 견해(南豊鉉 2007나)가 있다.

자토석독구결의 음운론적 연구는 문법적 연구보다는 미진한 느낌이 든다. 자토석독구결의 음운론적 연구를 위해서는 당시 한자음은 물론 전래된 이후의 한자음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만, 국내외의 한자음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본격적인 음운론적 연구를 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든다. 또한 자토석독구결 자료가 근본적으로 문법자료의 성격이 짙다는 것도 음운론적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자토석독구결의 음운론적 연구로는 '-ㄱ-'과 '-ㅣ'[다]의 형태음소론적 교체(李丞宰 1994), '-ㅎ/ㄷ-'의 형태음소론적 연구(李丞宰 2000나), '-ㄱ-'의 약화와 탈락 과정(李丞宰 2002)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이용한 어휘 연구로는 『華嚴經』 구결의 상태동사 어간의 독법(李丞宰 1995), '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鄭在永 1995가), {-이} 파생부사와 부사형(鄭在永 1998가), 차자표기 자료의 어휘(朴盛

鍾 1997), 『舊譯仁王經』의 어휘(朴盛鍾 1998), 자토석독구결의 '皆ㄴ', '悉ㅋ'와 『普賢十願歌』의 '頓部叱', '盡良'에 대한 비교(金永萬 1997), 『瑜伽師地論』에 나오는 '由ㅋ-', '如ㅊ-', '如ㅣ-', '如ㅁ-', '如ㅅ-', '如印-'의 독법(金永萬 2000, 2002) 등이 있다. 장윤희(2006)은 석독구결, 향찰, 이두 자료를 대상으로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의 목록과 체계 그리고 형태·의미적 특징을 밝힌 논의인데, 고대국어 파생접미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사실 중의 하나로 피동접미사의 不在를 들고 있으며, 그 이유를 고대국어에서는 被動을 他動文으로 표시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고대국어에서 피동접미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현상인지 더 상세히 고찰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

4. 토의 문법적 기능

자토석독구결의 문법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토를 중심으로 문법적 기능을 밝히는 논의와 문법 범주 또는 문장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전자에 대해 알아본다.

'ㅊ'에 대해서 李丞宰(1993가)에서는 김완진(1980)에서 제시한 지정문자 기능으로 파악하였으나, 백두현(1993)은 'ㅊ'와 '矣'의 독법과 문법 기능의 비교를 통해서 지정문자설을 부정하였다. 南豊鉉(2007나)에서는 'ㅊ'의 독음이 [디]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화엄경 계열에서는 활발하게 쓰이다가 유가사지론 계열에서는 '如ㅊㄴ-'의 表記만으로 제한되어 쓰인 것을 통해, 'ㅊ'가 12세기 前半期까지는 널리 쓰이다가 13세기 前半期에는 그 기능이 크게 쇠퇴하여 化石으로 남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화엄경 계열의 자토석독구결 자료가 유가사지론 계열의 자토석독구결 자료보다 앞선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에서 보이는 언어 차이가 시기적 차이만의 문제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기 경향 등 다

른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ㅌ/ᄐ(ᄯ)'에 대해서는 이은규(2003, 2004)에서 이 토가 현토되는 '爲, 由, 以' 등의 한자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ナ-'에 대해서는 李丞宰(1996, 1998나, 2006)에서 大衆佛子類에 호응하는 낮은 등급의 존경법 선어말어미로 파악한 논의와 南豊鉉(1996다), 金斗燦(1997), 백두현(1997가), 김영욱(1999가), 박진호(1998) 등과 같이 시제, 동작상, 서법과 관련된 형태로 보는 논의로 대별할 수 있다. 한편 南豊鉉(1996다)는 '-ナ-'를 일종의 동사로 파악하고 있다. 金斗燦(1997), 백두현(1997가), 김영욱(1999가) 등은 각각 [완료] 내지 [과거], [완료] 또는 [완료 지속], [완료된 동작의 지속] 등으로 '-ナ-'의 기능을 파악하고 있다. 李丞宰(2006)은 이들에 대한 견해를 반박하고 李丞宰(1996)의 '大衆佛子類에 호응하는 낮은 등급의 주체존대법 선어말어미'임을 재강조하였다. '-ナ-'가 12세기에는 3등급의 존경법 체계의 가장 낮은 존경법의 기능을 하다가 13세기 중반 이후로는 소멸된 형태소라고 본 것이다.

자토석독구결의 토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토 자체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토가 현토되는 漢字를 중심으로 현토되는 토를 검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故'字에 현토되는 석독구결의 양상(장경준 2001가, 나, 다), '者'字와 관련하여 현토되는 석독구결의 양상(서민욱 2001), '如'字에 호응하는 석독구결의 양상(金永萬 2000, 2002, 서민욱 2004), '爲'字에 현토되는 석독구결의 양상(金星周 2005나, 2005다) 등이 있다.

장경준(2001)은 '故'字의 현토 양상을 5종의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따라 살핀 것으로, '故'가 동사구 끝에 위치한 경우, 동사는 '-ㄱㅅᄭ'가 현토되며 '故'가 문장 종결의 위치에 있으면 '-(ㅢ)ㅣ'가 현토되고, '故'가 인과관계를 가지는 접속문의 선행절에 속해 있으면 유가사지론 계열에서는 'ノ', 화엄경 계열에서는 'ᄎ'가 현토되며, '故'가 나열관계를 가지는

접속문의 선행절에 있으면 '(ㄹ)ᄉᆞᆫ'가 현토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 '故'字가 명사구 끝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명사구는 '-ᄆᆞᆫ'가 현토되고 '故'에는 'ㅣ(x)'가 현토된다. 이외에도 독립된 명사로 쓰인 '故'의 현토 양상도 거론되었다.[3] 金星周(2005나, 2005다)는 '爲'字에 현토되는 토와 기능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를 위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ᄅᆞᆯ {爲}ᄒᆞ/ᄒᆞ(ᄉᆞᆷ)'으로 현토되며, 'NP_1을 NP_2로 삼다'의 의미일 경우에는 'NP_1ㄹᆞ NP_2 {爲}ᄒᆞ/ᄒᆞ(ᄉᆞᆷ)'으로 현토되고, '되다'의 의미일 경우에는 '-ㅣ ᄅᆞ{爲}ㅅᆞᆫ ㄷᆞ-'로 현토되며, '爲A所B' 구문일 경우에는 화엄경 계열에서는 '되다'와 동일한 현토 경향을 보이지만, 유가사지론 계열에서는 '爲ㅎᆞ-' 또는 '爲ㅡㅣ-'가 현토된다는 점을 밝혔다.

不讀字에 대한 논의도 있다. 南豊鉉(2007가)는 35字 36項의 不讀字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 이 글에서의 不讀字란 '뜻이 吐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서 읽지 않는 漢字'를 말한다. 尹幸舜(2007)은 한국의 不讀字의 개념은 南豊鉉(2007가)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일본의 不讀字는 해당 '한자에 직접 傍訓이 기입되지 않고 다른 곳에 傍訓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한문 독법의 차이를 밝힌 글이다.

5. 석독구결문의 文法形態

석독구결의 文法範疇나 통사론적 구조와 관련된 논의는 조사, 선어말

3) 장경준(2001)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로 첫째, '故'字가 동사구 끝에 위치했으면서도 동사가 '-ㄱᆞᆫ'로 현토되지 않는 경우 '故ㅊᆞ'로 현토되고, 둘째 '故'字가 명사구 끝에 위치했으면서도 명사구가 '-ᄆᆞᆫ'로 현토되지 않는 경우에는 '故ㄴᆞ-x'로 현토되며, 셋째 동사 어간 뒤의 '故ㅣ'에 다른 토가 통합된 경우 '故'字의 통사적 환경이 '故ㅣ'로 현토된 경우와 다르며, 넷째 '故(x)ㅣ'나 '故(x)ᄉᆞ'로 현토될 자리에 '故ㅡ'로 현토된 경우, 다섯째 '故ㅣ'로 현토될 자리에 '故ㅁᆞ'나 '故ㅊᆞ'로 현토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격조사나 보조사와 관련된 토로는 아래와 같다.

(1) 가. '-ㅐ', '-ᄉᆞ', '-ᄀᆞᆯ', '-ᄯᅴ', '-ᄒᆞ', '-ᄑᆞ', '-(ᄋᆞ)ㅣ', '-ㅅㅣ', '-ᄭᅴ', '-ㅐ' (접속조사), '-ㅅㅣ', '-ㅅ', '-ᄋᆞ', '-ᄒᆞ'
나. '(-)ᄀᆞㅣ', 'ᄒᆞ', '火(ᄒᆞᆫ)'

자토석독구결의 격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李建植(1996), 李丞宰(1998), 박진호(1998, 2007) 등이 있다. 박진호(1998, 2007)에서 논의한 격조사와 보조사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언급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토석독구결에서 주격은 '-ㅐ'로 실현된다. 그러나 특이한 주격 형태로서 '-ᄉᆞ'이 있다. 이 형태는 鄕歌나 吏讀에서도 각각 '身靡只' 또는 '弋只'의 형태로 실현된다. 대격은 '-ᄀᆞᆯ'로 실현되었는데, 동명사 어미로 형성된 명사절에도 통합될 수 있으며, 동명사 어미와 결합하여 절 접속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속격은 '-ᄯᅴ'과 '-ᄒᆞ'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능과 용법이 대체로 15세기 국어와 동일하다. 처격과 여격으로는 '-ᄋᆞㅣ', '-ㅅㅣ', '-ㅣ', '-ᄋᆞ', '-ᄒᆞㅣ' 등이 쓰였다. 구격조사로는 '-ᄭᅴ'가 쓰였는데 '도구'와 '원인, 이유'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중세국어와 동일하다.

접속조사로는 '-ㅐ', '-ㅅ', '-ㅅㅣ/ㅡ'가 있는데, '-ㅐ'는 '-ㅅㅣ/ㅡ'보다도 더 긴밀한 구성을 접속하는 기능이 있다. '-ㅅㅣ/ㅡ'에 의해 명사구가 나열될 때에는 명사구를 아우르는 동사 'ᄉᆞᆫ-'가 나오는 것도 특징적이다. 호격의 기능을 가진 조사로는 '-ᄋᆞ', '-ㅅ', '-ᄒᆞ'가 있다. 명명의 조사로는 '-ㅅㅣ'가 쓰였다. 명명된 부분이 절의 형태이면 '-ㄱᆞᄃᆞ' 또는 '-ᄑᆞᄃᆞ'가 실현되는 데 이때의 'ᄃᆞ'는 의존명사 'ᄉᆞ'와 인용조사 '-ㅅㅣ'가 결합된 형태이다.

보조사에는 'ᄀᆞㅣ, ᄒᆞ, 火ᄒᆞᆫ' 등을 거론할 수 있다. 'ᄀᆞㅣ'는 '두루'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쓰이는데, 석독구결의 'ㅕ'는 명사인 것으로 보이지만 동사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용례도 있다.(金星周 2004) 'ㅑ'는 현대국어의 '-야'에 해당하는 보조사이다.

하귀녀(2004)는 석독구결의 '-火七'이 15세기어의 '-붓', '-봇', '-곳/옷'과 분포와 의미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 의미를 [지적], [강세]로 보았다. 여기서 '-火七'은 '-곳/옷'의 선대형으로 보고, '-봇'은 '-붓'이 음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았다. 장경준(2006)은 『舊譯仁王經』에서 그동안 'ᄉᆞᆼ'로 읽어 온 'ᄉᆞᆫ'가 '火'임을 밝힌 논의이다. 종래에는 'ᄉᆞᆫ'의 'ㄴ'에 대해 原字를 '如, 也, 良' 등으로 보고 독음은 [야]로 읽어 왔다. 그러나 'ᄉᆞᆫ'가 출현하는 『舊譯仁王經』의 3예가 모두 [지적]이나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타동사의 목적어 끝에 놓이는 분포도 일치하며, 점토석독구결 자료 『瑜伽師地論』 권제5와 권제8에서 '34~44(·)'으로 기입된 여러 예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각필로 기입되어 있는 구결자의 두 例는 『舊譯仁王經』의 '火'과 자형이 유사함을 보였다.

국어의 문법범주는 대부분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자토석독구결 연구에서도 단연 선어말어미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이다.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보이는 구결자는 아래와 같다.

(2) '-白-'[습], '-ㅎ/ㄴ-'[시], '-ㅁ/ㄹ-'[오], '-ナ-'[겨], '-ㅂ-'[ᄂᆞ], '-ㅏ-'[누], '-ㅋ-'[아], '-ム-'[거], '-ㅁ-'[고], '-七-'[ㅅ], '-ㅔ-'[리], '-ㅁ七-', 등

자토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에 대해서는 존경법 '-ㅎ/ㄴ-'와 겸양법 '-白-'의 분포와 기능(백두현 1995나), 선어말어미 '-ㅁ/ㄹ-'의 분포와 기능(백두현 1996, 1997다), '-ᄂᆞ-'의 기능과 변화(鄭在永 2000), '-ナ-'의 의미와 기능(李丞宰 1996, 2006, 鄭在永 2002), '-ㅁ-'의 분포와 기능(이용 1999), '-리-'의 기원(이병기 1998), 시상과 서법 선어말어미(金永旭 1999가, 1999나, 2000), 선어말어미 '-ナ-'[겨], '-ㅂ-'[ᄂᆞ], '-ㅏ-'[누],

'-ㄹ-'[리], '-ㅇ-'[아], '-ㄱ-'[거], '-ㅁ-'[고], '-ㅅ-'[人]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백두현 1997가) 등이 있다.

그러나 선어말어미의 기능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앞서 거론했던 '-ㅏ-'의 성격도 그렇고, 자토석독구결의 '-ㅏ-'가 15세기어의 '-ㄴ-'와 관련이 있다는 논의도 '-ㅌ-'와 함께 시제·상·서법 범주와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5세기의 '-ᄉᆞᆸ-'과 다른 기능의 '-白-'에 대해서 현토자가 문장의 주어나 객어에 대해 갖는 문법 의식을 기준으로 설명한 논의(백두현 1995나)가 있으며, 『三國遺事』 소재 향가에서는 '白'이 동사로 쓰이다가 『均如傳』 소재 향가에서는 선어말어미로서의 기능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고대 국어 시기는 '-숣-'의 문법화에 있어서 과도기로 규정한 논의(박진호 1997)가 있다.

자토석독구결에서 종결을 담당한 형태로는 아래의 구결이 있다.

(3) '-ㅣ'[다], '-ㅕ'[뎌/셔], '-丁'[뎌], '-ㅣ/ㅡ'[여], '-ㅁ'[고], '-ㅇ'[아], '-ㅛ'[셔] 등

종결어미와 관련된 연구로는 '-ㅛ'의 분포와 기능(鄭在永 1996나), 의문법 어미의 형태와 발달 과정(鄭在永 1995나, 장윤희 2002, 고은숙 2008), 명령형 어미(구조체)의 종류와 기능(장윤희 1997), 감탄법 종결어미(구조체)의 종류와 기능 및 변화(장윤희 1998, 鄭在永 2001), 『舊譯仁王經』 권상의 종결어미의 종류와 기능(장윤희 1999) 등이 있다.

고은숙(2008)은 자토석독구결의 의문문이 주로 첨사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시기에 이미 의문어미에 의해서도 의문문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고, 장윤희(1997)은 자토석독구결의 명령법 어미로 鄕歌에서 보이는 '-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자토석독구결에는 실제로 '-라' 명령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료상의 제약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ㅌㅛ'에 대해서 화자의 내적인 바람이나

욕망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역시 자료상의 제약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윤희(1998)은 '-ㄱㅕ'와 '-ㄱㄲ'를 동일한 형태([-ㄴ뎌])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15세기어의 감탄형 종결어미 구조체 '-ㄹ쎠' 등은 석독구결 이후 어느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자토석독구결에서 절 접속을 담당한 형태로는 아래의 구결이 있다.

(4) '-ᄉᆞ', '-ㅁ', '-ᄒᆞ', '-ㄱ', '-ㄱㄹ', '-ㄷ', '-ㅱ', '-ㄱㅅㄱ', '-ㅋ(ᄭ/ㅅ)', '-ㅁ' 등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로는 동명사 어미 '-ㄱ'의 연결어미 기능(南豊鉉 1996나, 장윤희 2004), 자토석독구결의 '-ㄱㄹ'의 기능과 분포(이용 1997, 남미정 2004), '-거든'의 문법사적인 고찰(이용 1998), 연결어미의 형성(이용 2000), '-ㅁ斤'과 '-ㅋ斤'에서의 '斤'의 독법과 기능(황선엽 2003), '-ナㄱ/-遣'의 독법과 기능(황선엽 2002, 장윤희 2005) 등이 있다.

이용(1997)은 자토석독구결의 '-ㄱㄹ'을 '동명사형 어미+대격 조사'와 '연결어미'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황선엽(2003)은 종래에 [놀]로 읽혀 오던 '-斤'을 음가대로 [근]으로 읽을 것을 주장하였다. '-斤'을 '-놀'로 보면 '-ㅁ斤', '-ㅋ斤'은 '-ㅁㄱㄹ', '-ㅋㄱㄹ'과 동음의 형태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조건], 후자는 [전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斤'은 'ㄱㄹ/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장윤희(2005)는 鄕歌의 연결어미 '-遣'이 선어말어미 '-겨-'와 동명사 어미 '-ㄴ'의 통합체 '-견'이라는 견해(황선엽 2002)를 받아들여 그 독음을 [겨]로 보고 그 의미 기능을 [계기성, 동시성, 전제] 등으로 보았다.

관형절 구성에 대해서는 未定 관형사형구성의 종류와 기능(이장희 1996가), 관형사절 '-ㅌㄷ/ᄉㄷ'과 '-ㄱ/-ㄲ'이 실현된 구문의 통사적 차이(황국정 2000)에 대한 논의가 있고, 특정 통사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대해서는 '-ㅋ+ ㅅ-' 구문(황국정 2001), 부정문의 유형과 특성(조은주

2001, 이용 2003), 사동(金星周 2005가), 피동(金星周 2006) 등이 있다.

이장희(1996가)는 자토석독구결의 미정 관형사형 구성으로 '-尸' 구성과 '-𠬜七' 구성의 두 가지를 지적하고, 이 두 가지 구성의 공존을 명사문의 동사문화 과정으로 보았다. 황국정(2000)은 자토석독구결의 관형사형 구성을 '-ㅌ七/-𠬜七'으로 실현되는 구성과 '-ㄱ/-尸'로 실현되는 두 가지 구성으로 파악하고, 자토석독구결의 문법에서는 보문과 관계절의 구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전자는 보문을 이루며, 후자는 관계절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ㅌ七/-𠬜七'이 관계절로도 실현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표제명사가 의존명사인 경우에만 국한됨을 밝혀, 표제명사가 의존명사일 경우에는 자립명사일 경우와는 달리 '-𠬜七'의 실현을 막는 것으로 보았다. 이용(2003)은 자토석독구결의 부정법을 명사문 부정과 동사문 부정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는 '명사(구)+不矣(非(ㅣ)矣/未矣)'와 '형용사+-ㄱ+不矣(非矣/未矣)'로 실현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부정은 '不冬+동사/형용사'의 단형부정과 '동사+-尸+不冬(非冬)' 또는 '동사+-ㄱ+不ㅅ'의 장형부정 구성으로, 능력부정은 '동사+-尸+不ㅅ(未ㅅ), 未ㅣ, 不能ㅣ矣' 구성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석독구결에서 사동은 '-ㅣ-'에 의해서 실현되며, 15세기 국어의 '-이-'가 형태론적 구성에만 관여하는 것에 비해 통사적 사동의 기능을 하고 있다(박진호 1998, 金星周 2005가, 장윤희 2006). 피동 범주는 사동 범주보다 그 실현 정도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고전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이라 할 수 있는 '爲A所B' 구문에 대한 석독구결의 대응 형태는 화엄경 계열의 경우 '-ㅣ尸{爲}入乙ン-' 구성으로 실현되는데 비해, 유가사지론 계열의 경우 '-乙 爲ㅅ-' 등으로 실현된다는 차이가 있다.

6. 결론

1973년『舊譯仁王經』발견 이후 이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석독구결에 대한 이해의 단초가 마련되었고, 90년대 이후 다른 자토석독구결 자료들이 속속 발굴되어 연구되면서 이제는 자토석독구결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는 고대국어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는 자토석독구결 연구의 성과 몇 가지를 거론하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자토석독구결의 연구 성과는 향가 해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자토석독구결의 연구 성과를 향가 연구에 반영한 논의는 일찍이 南豊鉉(1977)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승재(1991, 1993), 김영만(1997), 황국정(2000), 황선엽(2002), 장윤희(2005)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박진호(2007)과 장윤희(2008)은 향가 연구에서 석독구결의 연구 성과의 반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토석독구결 연구에는 점토석독구결 연구의 성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점토석독구결의 연구 자체는 자토석독구결에 기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점토석독구결이 자토석독구결에 비해 더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후자에 없는 확인되지 않는 언어 사실이나 불충분한 언어 사실을 전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자토석독구결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초기의 자토석독구결 연구 결과와 지금의 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의 자토석독구결 이해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연구 수준이 자토석독구결을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직도 자토석독구결의 문법 체계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토석독구결의 내용 파악이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자토석독구결은 한문을 우리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생겨난 일종의 문자 체계이다. 종래에는 자토석독구결을 이두, 향찰과 같은 차자표기의 일종으로만 다루었지, 한문 해독의 수단으로서 접근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두와 향찰은 借字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지만, 자토석독구결은 차자표기로서의 특성과 함께 한문을 우리말로 해석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자토석독구결은 원문인 한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토석독구결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원문인 한문(고전중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參考文獻

고영근(1989/1998), 『중세국어의 時相과 敍法』, 탑출판사.

고영근(1987/1998),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고영근(1998), 「석독구결의 국어사적 가치」, 『口訣硏究』 3, 1-28.

高榮燮(1999), 「한국불교사에서 舊譯仁王經의 疏通과 疏遠」, 『口訣硏究』 5, 1-32.

고은숙(2008),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高正儀(2004), 「口訣 硏究의 現況과 課題」, 『口訣硏究』 12, 5-46.

구결학회편(1997),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

국립국어연구원편(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사연구회편(1993), 『國語史 자료와 國語學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권용경(2000), 「석독구결의 '-七(ㅅ)'에 대하여」, 『형태론』 2.2, 307-322.

권인한(1997), 「한자음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283-344.

金斗燦(1995), 「≪구역인왕경≫ 구결 기능체계」,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161-214.

金斗燦(1997), 「舊譯仁王經 口訣 解讀 試攷」, 『口訣硏究』 2, 161-241.

金斗燦(1999), 「다시 토 '𠬜'와 '尸'에 대하여」, 『口訣硏究』 5, 59-74.

金斗燦(2000), 「≪華嚴經十四≫의 구결 기능체계」, 『口訣硏究』 6, 343-449.

金斗燦(2001), 「석독구결 '子'에 대하여」 『國語學』 37, 251-261.

金星周(2004), 「'ㅜ'와 '43(\)'」, 『동국어문학』 16,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111-130.
金星周(2005가), 「釋讀口訣의 使動 表現」, 『口訣硏究』 14, 147-171.
金星周(2005나), 「'爲'에 懸吐되는 口訣字와 機能」, 『口訣硏究』 15, 29-54.
金星周(2005다), 「고려시대 석독구결 '爲'字에 현토된 난해 구결」, 『한국어문학연구』 35, 61-78.
金星周(2006), 「釋讀口訣의 被動 表現」, 『口訣硏究』 16, 119-140.
金永萬(1986), 「舊譯仁王經의 釋讀表記 小考」, 『國語學新硏究』(金敏洙敎授華甲紀念), 탑출판사, 58-69.
金永萬(1997), 「석독구결 '皆ᄀᆞᆮ', '悉ᄉᆞᆯ'와 고려향찰 '頓部叱', '盡良'의 비교 고찰」, 『口訣硏究』 2, 1-26.
金永萬(2000), 「<瑜伽師地論>의 「由ᄒᆞ-」와 「如ᄎᆞ-」의 讀法에 대하여」, 『口訣硏究』 6, 41-60.
金永萬(2002), 「口訣語 如(ㅣ·ᄎᆞ·ᄃᆞᆫ·ㅅ·印)의 解讀法 硏究」, 『한민족어문학』 40, 117-139.
金永旭(1997), 「14세기 문법 형태 '-ㅋ/ㄷ[의/ㅅ]'의 교체에 대하여」, 『口訣硏究』 2, 243-264.
金永旭(1999가), 「舊譯仁王經 口訣의 시상과 서법 선어말어미」, 『口訣硏究』 5, 147-164.
金永旭(1999나), 「전기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先淸語文』 27, 719-751.
金永旭(2000), 「14세기 국어의 시상과 서법-'-ᄂᆞ-, -더-, -리-, -거-, -니-'를 중심으로-」, 『口訣硏究』 6, 61-86.
金完鎭(1980), 「指定文字說의 定立을 위하여」, 『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일조각.
김동소·남경란(2003), 「<大方廣佛華嚴經 (卷35)> 입겾의 독음 연구-'-ㅅ', '-ㅿ', -'ᄎᆞ'을 중심으로」, 『語文學』 79, 115-131.
김무림(1998), 「석독 구결 음차자의 독법에 대하여」, 제18회 구결학회 공동연구논문집, 33-49.
김무림(1999), 「高麗時代 口訣 漢字音의 硏究」, 『口訣硏究』 5, 75-108.
김유범(1996), 「'尸'의 二重的 音價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한국어학』 4, 207-219.
김유범(2001),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와 구결자 '卞'의 독법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이광호교수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565-585.
김유범(2001), 「시간성 의존명사 '다'를 찾아서」, 『형태론』 3.2, 209-229.
남경란(2002), 「<大方廣佛華嚴經疏(卷35)> 釋讀 資料에 나타난 독음 고찰-'-ㄱ', '-ㄷ'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25, 259-283.
남경란(2003), 「<대방광불화엄경소> (권35) 입겿 연구」, 『배달말』 32, 1-24.
南權熙(1993), 「高麗本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와 그 口訣資料」, 1993년 여름 구결학회 공동연구회발표문.
南權熙(1994가), 「高麗本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의 書誌學的 考察」, 1994년 여름 구결학회 공동연구회발표문.
南權熙(1994나), 「高麗 釋讀口訣 資料 金光明經 卷三의 紹介」, 1994년 11월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발표요지.
南權熙(1996), 「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의 書誌的 分析」, 『口訣硏究』 1, 377-403.
南權熙(1997), 「차자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147-194.
南權熙(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남미정(2004), 「接續語尾 '-ㄱㄷ'에 대한 一考察」, 『口訣硏究』 12, 157-189.
南星祐·鄭在永(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195-251.
南豊鉉(1976), 「國語 否定法의 發達」, 『문법연구』 3, 55-82.
南豊鉉(1977가), 「국어 치격조사의 발달」, 『이숭녕선생 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69-94.
南豊鉉(1977나), 「鄕歌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之叱'에 대하여」, 『언어』 2.1, 56-66.
南豊鉉(1986), 「舊譯仁王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新硏究』, 탑출판사, 49-57.
南豊鉉(1987), 「중세국어의 과거시제어미 '-드-'에 대하여」, 『國語學』 16, 55-63.
南豊鉉(1988),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233-242.
南豊鉉(1990), 「吏讀·口訣」,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594-604.
南豊鉉(1991가), 「高麗時代 口訣의 一·二 問題」, 『어문연구』 70·71, 261-264.
南豊鉉(1991나),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字生活」, 『韓國思想史』 3, 488-548.
南豊鉉(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東方學志』 81, 115-181.

南豊鉉(1994), 「신역 화엄경 권14의 고려시대 석독구결」, 『국문학논집』 14, 단국대국문과, 1-28.
南豊鉉(1996가), 「≪金光明經≫ 卷三 釋讀口訣에 나타난 ㄲ의 用法에 대하여」,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228-251.
南豊鉉(1996나),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ㄲ/ㄹ'에 대한 考察」, 『口訣硏究』 1, 3-10.
南豊鉉(1996다),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國語學』 28, 1-48.
南豊鉉(1997),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ㅅ자와 ㅿ자의 原子에 대하여, 『語文學論叢, 淸凡陳泰夏敎授啓七頌壽紀念』, 太學社, 459-469.
南豊鉉(1998), 「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253-336.
南豊鉉(1999가), 『國語史를 위한 口訣 硏究』, 태학사.
南豊鉉(1999나),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태학사.
南豊鉉(1999다), 「古代國語의 文法 形態」, 『第3次 環太平洋 韓國學 國際會議 한국학논총』, 한국문화사, 39-58.
南豊鉉(2000라), 「條件法 連結語尾 '-면'의 發達」, 『口訣硏究』 6, 11-40.
南豊鉉(2001나), 「口訣의 種類와 그 發達」, 『제25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55-58.
南豊鉉(2007가),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난 不讀字에 대한 考察」, 『口訣硏究』 18, 207-250.
南豊鉉(2007나), 「釋讀口訣의 '支'의 讀音과 機能에 대하여」, 『古代 韓日의 言語와 文字』 2007 韓日 國際워크샵 發表論文集, 35-47.
南豊鉉·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其一)」, 『東洋學』 6, 1-68.
藤本幸夫(1993), 「韓國의 訓讀에 대하여」,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 지성사, 642-649.
박성종(1997), 「차자 표기의 어휘론」, 『새국어생활』 7.4, 61-77.
朴盛鍾(1999), 「舊譯仁王經 口訣의 語彙」, 『口訣硏究』 5, 201-220.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117-145.
박진호(1998), 「고대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121-205.

박진호(1999), 「舊譯仁王經 口訣의 構文論的 양상」, 『口訣硏究』 5, 189-200.
박진호(2001),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특징」, 『한문고판본과 그 수용(훈독)』, 북해도대학 국제 워크샵 논문집, 237-249.
박진호(2007), 「鄕歌 解讀과 國語 文法史」, 『國語學』 51, 313-338.
白斗鉉(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支와 矢-그 讀音과 문법 기능」, 『어문논총』 27, 125-153.
백두현(1995가),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十'에 관한 고찰」, 『國語史와 借字表記』(素谷, 南豊鉉先生回甲紀念論叢), 태학사, 253-284.
백두현(1995나),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ㅱ-', '-ㅂ-'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29, 45-70.
백두현(1996), 「고려 시대 釋讀口訣의 선어말어미 '-ㅎ(오)-'의 분포와 문법 기능」, 『어문론총』 30, 93-136.
백두현(1997가), 「高麗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 287-384.
백두현(1997나), 「高麗 時代 釋讀口訣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口訣硏究』 2, 27-95.
백두현(1997다),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선어말어미 '-ㅎ(오)-'에 대한 통사적 고찰」, 『진단학보』 83, 235-272.
백두현(1999),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경어법」, 『口訣硏究』 5, 127-146.
백두현(2005), 『석독 구결 자료의 기능과 체계』, 태학사.
서민욱(2001),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7, 167-197.
徐民旭(2004), 「'如'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13, 175-220.
서민욱(2005), 「≪瑜伽師地論≫ 卷5·8의 點吐口訣 硏究」,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沈在箕(1975), 「舊譯仁王經 上 口訣에 대하여」, 『美術資料』 18, 19-35.
沈在箕·李丞宰(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29-111.
안병희(1987), 「均如의 方言本 著述에 대하여」, 『國語學』 16, 41-54.
尹幸舜(1999), 「韓·日의 漢文讀法에 대한 비교」, 『口訣硏究』 5, 33-58.
尹幸舜(2004), 「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訓点에 나타나는 華嚴經의 不

讀字 用法」, 『口訣硏究』 13, 39-63.
尹幸舜(2005), 「韓日의 漢文讀法에 나타나는 「乃至」에 대해서」, 『口訣硏究』 14, 97-121.
尹幸舜(2007가), 「韓日 漢文讀法에서의 不讀字 處理에 대한 차이점」, 『古代 韓日의 言語와 文字, 2007 韓日 國際워크샵 發表論文集』, 235-251.
尹幸舜(2007나), 「韓日 漢文讀法에서의 不讀字 범위에 대한 고찰」, 『口訣硏究』 19, 107-137.
李建植(1995), 「鄕札과 釋讀口訣의 訓讀末音添記에 대하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133-160.
李建植(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문(1972), 『改訂 國語史 槪說』, 민중서관.
이금영(2000), 「구결자 '-ㅏ-', '-ㅈ/ㅊ-'의 분포와 기능에 대하여」, 제22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요지.
李東林(1982), 「舊譯仁王經의 口訣 解讀을 위하여」, 『論文集』 21, 동국대학교, 137-186.
이병기(1998),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 『口訣硏究』 4, 1-22.
이병기(2006), 「한국어 미래성 표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丞宰(1986), 「舊譯仁王經 口訣文의 否定文에 대하여」, 제13회 國語學會 겨울 공동연구회 발표요지.
李丞宰(1991), 「鄕歌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ㅁㅏㅊ'에 대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438-456.
李丞宰(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3, 325-379.
李丞宰(1994),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形態音素論的 硏究」, 『震檀學報』 78, 307-326.
李丞宰(1995), 「華嚴經 口訣의 狀態動詞 語幹」, 『韓日語學論叢』(李鍾徹先生回甲紀念論叢), 國學資料院, 495-522.
李丞宰(1996),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ㅅ(겨)-'」,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517-556.
李丞宰(1997가), 「吏讀와 口訣」, 『새국어생활』 7.2, 135-144.

李丞宰(1997나), 「借字表記의 變化」, 『國語史硏究』(田光鉉·宋敏先生華甲紀念), 태학사, 211-246.
李丞宰(1998가),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41-75.
李丞宰(1998나),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경어법 연구」, 『國語 語彙의 基盤과 歷史』(沈在箕編), 태학사, 843-878.
李丞宰(1998다),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29-111.
李丞宰(1999), 「≪舊譯仁王經≫ 口訣의 音韻史的 意義」, 『口訣硏究』 5, 109-126.
李丞宰(2000가), 「釋讀口訣의 數詞에 대하여」, 『21세기 국어학의 과제』(정광 교수 회갑기념논총), 月印, 423-435.
李丞宰(2000나), 「尊敬法 先語末語尾 '-ㅎ/ㅽ[시]-'의 形態音素論的 硏究 — 口訣資料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90, 215-235.
李丞宰(2000다), 「借字表記 資料의 格助詞 硏究」, 『국어국문학』 127, 107-132.
李丞宰(2002), 「口訣資料의 '-ㄱ-' 弱化·脫落을 찾아서」, 『韓國文化』 30, 1-30.
李丞宰(2006), 「사라진 '-[겨]-'의 문법범주를 찾아서」, 『21세기, 형태론 어디로 가는가?』, 박이정. 167-222.
李丞宰·沈在箕(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29-111.
이 용(1997), 「'-乙'에 대하여」, 『口訣硏究』 2, 131-160.
이 용(1998), 「연결어미 '-거든'의 문법사적 고찰」, 『口訣硏究』 4, 23-56.
이 용(1999), 「석독구결 선어말어미 '-ㅁ-'에 대하여」, 『형태론』 1.1, 115-132.
이 용(2000), 「연결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용(2003), 「석독구결에 나타난 부정사의 기능에 대하여」, 『口訣硏究』 11, 249-274.
이 용(2008), 「古代 및 中世 吏讀 연구의 회고와 전망」, 創立 20周年紀念 口訣學會 第36回 全國學術大會 발표 요지문.
이은규(1996), 「석독 입겾 자료의 전산 처리」, 『한국전통문화연구』 11,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333-373.
이은규(2003), 「대방광불화엄경소(권35) 석독 입겾문의 동사 '삼-'에 대하여」, 『어문학』 81, 한국어문학회, 165-188.
이은규(2004), 「석독 입겾문의 동사 '삼-'의 의미 기능 - <화엄경소>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언어과학연구』 30, 언어과학회, 177-198.
이장희(1995가), 「고려시대 석독구결문의 '-ㄷ'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16, 문학과 언어 연구회, 103-120.
이장희(1995나), 「華嚴經 口訣字 'ㅁ'의 기능과 독음」, 『어문학』 56, 119-140.
이장희(1996가), 「고려시대 석독구결문의 미정관형구성에 대하여」, 『어문논총』 30, 103-120.
이장희(1996나),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ᄉᆞ'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17, 문학과 언어연구회, 1-14.
장경준(2001가), 「석독구결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자의 독음과 의미기능」, 24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요지.
장경준(2001나), 「釋讀口訣의 '故'자의 현토 경향에 대한 고찰(1) -字吐釋讀口訣 자료 5종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7, 구결학회, 113-134.
장경준(2001다), 「석독구결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자의 문법적 기능에 대하여」 『국어 문법의 탐구』 V, 남기심 엮음, 태학사, 537-558.
장경준(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 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경준(2006), 「석독구결의 구결자 '火'과 'ᄭᅩᆫ'에 대하여」, 『국어학』 47, 265-287.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硏究』, 태학사.
장윤희(1997), 「석독구결 자료의 명령문 고찰」, 『口訣硏究』 2, 97-130.
장윤희(1998),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口訣硏究』 4, 57-84.
장윤희(1998), 「중세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장윤희(1999), 「舊譯仁王經 구결의 종결어미」, 『口訣硏究』 5, 165-187.
장윤희(2001), 「중세국어 '-암/엄 직ᄒᆞ-'의 문법사, 『형태론』 3.1, 1-22.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41, 태학사.
장윤희(2002), 「한국어 의문법 어미의 문법사」, 『조선어 연구 1』, 동경: 구로시오출판, 167-205.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口訣硏究』 12, 47-80.
장윤희(2005), 「고대국어 연결어미 '-遣'과 그 변화」, 『口訣硏究』 14, 123-146.
장윤희(2006),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학』 47, 91-144.
張允熙(2008), 「鄕札 硏究의 回顧와 展望」, 創立 20周年紀念 口訣學會 第36回

全國學術大會 발표 요지문.
鄭在永(1992),「통합형어미 '-ㄴ든'과 '-ㄴ뎌'에 대한 고찰」,『國語學』22, 371-395.
鄭在永(1995가),「'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285-316.
鄭在永(1995나),「前期中世國語의 疑問法」,『國語學』25, 221-265.
鄭在永(1996가),『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國語學叢書 23, 太學社.
鄭在永(1996나),「終結語尾 '-ᄉᆞᆸ'에 대하여」,『震檀學報』81, 195-214.
鄭在永(1997가),「'-오-'의 변화」,『國語史 硏究』, 태학사, 601-643.
鄭在永(1997나),「고려시대 釋讀口訣」,『문헌과해석』1, 162-174.
鄭在永(1998가),「高麗時代의 {-이} 부사와 부사형」,『國語 語彙의 基盤과 歷史』, 태학사, 737-784.
鄭在永(1998나),「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口訣 硏究』3, 113-193.
鄭在永(2000),「고대국어 선어말어미 '-ᄂᆞ-'와 그 변화」,『형태론』2.1, 73-106.
鄭在永(2001),「國語 感歎文의 變化 -감탄법 종결어미의 변화를 중심으로-」,『震檀學報』92, 293-325.
鄭在永(2002),「선어말어미 '-ㅓ-(-겨-)'에 대하여」,『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출판부, 335-361.
鄭在永(2003),「口訣 硏究史」,『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 집문당, 101-125.
鄭在永(2006),「韓國의 口訣」,『口訣硏究』17, 125-182.
정재영・박진호(2002),「구결 자료 전산화의 현황과 과제」,『한국어와 정보화』, 태학사, 139-149.
조은주(2001),「고려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부정법 연구」,『口訣硏究』7, 135-165.
조은주(2002/2003),「前期 中世國語의 否定法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귀녀(2004),「보조사 '-곳/옷'과 '-火ㄷ'」,『국어학』43, 181-208.
황국정(2000),「석독구결의 두 관형사절에 대해 - '-ㅌㄷ/-ᄉᆞᆫㄷ'과 '-ㄱ/-ㅁ'이 실현된 구문의 통사적 차이를 중심으로 -」,『口訣硏究』6, 281-342.
황국정(2001),「석독구결의 '-ㅋㅓㄴ-' 구문에 대하여」,『제25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1-24.

황선엽(2000가), 「고려시대 구결자의 문자론적 검토」, 『덕성어문학』 10, 101-117.
황선엽(2000나), 「석독구결 'ㅁ'의 해독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26, 255-280.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선엽(2003), 「구결자 'ㅠ'의 해독에 대하여」, 『口訣硏究』 10, 115-142.
황선엽(2004), 「석독구결 자료의 불연속 형태소 '-ㅁㄱ-'에 대하여」, 『형태론』 6.1, 109-127.

(411-8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34번지 에이스 10차 아파트 102동 1002호)
E-mail: sutra01@hotmail.com
접수일자: 2008. 05. 31.
게재결정: 2008. 07. 17.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Study on *Jatoseokdok-kugyol*

Kim, Seong-ju

A research on the *Jatoseokdokkugyol*(hereafter; JSD) has begun on and after discovering ≪舊譯仁王經≫ in 1973. The scholars concentrated the decipherment of the JSD at the beginning but the level of the research has little by little risen since the discovery of the material of the JSD in the 1990's.

The research is progressing under the topics of a way of reading, phonemics(morpho-phonemics), and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the endings. Except only a few kugyol-letters, their way of reading and original letter(原字) were become clear.

It was impossible to write the grammatical system of the pre-middle Korean because of the lack of the material but, now, it is possible to describe it due to the abundant research fruits of the JSD. The fruit of the research on the JSD becomes, on the other hand, the detonator of the research on *Hyanggas* or old Shilla songs. No more possible to study *Hyanggas* without reflecting the fruit of the research on the JSD.

We have to reflect the fruit of the research on *Jeomtoseokdokkugyol* in order to study the special knowledge of

the JSD. The latter can fill up the former's weak points in many ways because the latter has the more abundant data than the former. And also, We need to understand exactly its contents and grammar of the original Buddhist scriptures, because the JSD is essentially a type of the writing system to understand the Chinese texts.

Key Words : Seokdokkugyol, *Jatoseokdokkugyol, Jeomtoseokdok kugyol*, Hyangga, Idu